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부적응과의 관계*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Verbal Control Modes and Children's Maladjustment

고려대학교 가정학과
대학원 김 리 은
고려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교 수 정 옥 분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Univ.
Graduate School : Kim, Li Eun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
Professor : Chung, Ock Boon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관련연구 고찰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verbal control modes and children's maladjustment. The subjects were 445 mothers and their children of sixth grade in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Seoul. To assess the parents' verbal control modes, questionnaire developed by Lee Kyung Hee(1993) was used. The modified version of Achenbach and Edelbrock's CBCL(Child Behavior Checklist) was administered to assess the children's maladjustmen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parents' verbal control modes in terms of children's sex difference and social status level. 2)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children's maladjustment in terms of children's sex difference and social status level. 3)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father's verbal control modes and children's maladjustment. Children's maladjustment

* 본 논문은 1996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was related positively to imperative mode and negatively to the person-oriented and position-oriented modes. The best variable explaining girl's maladjustment was father's position-oriented modes. 4) The negative impact of father's imperative mode in combination with the mother's imperative mode on the children's adjustment was greater than other combinations of the father and mother's verbal control modes.

I. 서론

아동은 가정내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지적·정의적 기초를 함양한다. 특히 가정에서의 양육태도는 언어적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지나친 꾸지람이나 거부, 행동의 제약이 많으면 성장을 저해하고 부정적 자아의식이 강하여 나아가 청소년 비행과 정서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또한 아동이 성장하면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아동은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사회생활에도 미치게 된다. 즉, 부모가 명령지향적인 언어통제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감정을 많이 억압하게 된 아동은 사회생활에서 욕구불만, 갈등, 소외감, 반항경향, 고독감 등 여러가지 부적응 현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차재호, 1983).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연령, 역할조망능력, 유아의 공격행동, 내외통제성, 자존감,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데(서선주, 1988; 안명신, 1987; 안영옥, 1987; 이경희, 1993; 이원정, 1990; 이점숙, 1990; 이현주, 1990; Thorlindsson, 1981; Wertsch, 1980, 1985), 이를 통해 부모의 언어적 양육방식 즉 언어통제방식은 아동의 현재와 미래의 제 발달과 제반 행동특성을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전통적 가치관의 혼란과 날로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서 학동기 아동들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질적으로 잔인화, 연소화, 습관화의 추세로 가고 있음을 볼때 이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학동기 동안의 이러한 장애들은 쉽게 모방되거나 확산될 수 있으며 나이가 들면서 집단화 또

는 폭력화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많다(서대선, 1982)고 하겠다.

이처럼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시점에 비추어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아개념, 가정환경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김재은, 1984; 박세은, 1994; 오승연, 1994; 정원식, 1977; Hallahan & Kauffman, 1978).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부모가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보고하고 있으나 대부분 부모의 양육태도와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아동의 부적응을 부모와의 언어적 요소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한 국내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상호작용 중 특히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부적응과의 관련성을 밝혀 이에 기초하여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부모-자녀관계의 발전 및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에 도움을 주고 관련연구에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목적에 따라 제기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은 아동의 성별, 사회계층에 따라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
 - 1-1)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은 아동의 성별, 사회계층에 따라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
 - 1-2)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은 아동의 성별, 사회계층에 따라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
2. 아동의 부적응은 아동의 성별, 사회계층에 따라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
3.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은 아동의 부적응과 관계가 있는가?
 - 3-1)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은 아동의 부적응과 관계가 있는가?

- 3-2)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은 아동의 부적응과 관계가 있는가?
 4. 어머니와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의 일치여부는 아동의 부적응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II. 관련연구 고찰

1.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사회적 관계의 유형이 언어를 말로 표현할때 선택하고 조직하는 어법원칙을 통제한다는 관점에서 Bernstein(1971)은 제한된 언어모형과 발전된 언어모형의 두 언어모형에 기초해서 가정에서 부모가 아동의 행동을 통제할 때 사용한 언어양식을 분석하여 명령적 통제, 지위지향적 통제, 인성지향적 통제양식으로 분류하였다. 명령적 통제는 부모가 아동의 행동을 통제할때 아동의 역할재량권을 무시하고 신체적, 언어적 강제나 명령을 사용하는 통제유형이다. 지위지향적 통제는 아동의 지위에 근거한 규범에 따르는 통제양식을 의미한다. 인성지향적 통제는 아동의 특성에 따라 역할재량권을 부여하고 개인의 특성, 의도, 동기를 중요시하는 통제양식이다.

또한 Bernstein은 사회계층과 가족역할체계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일반사회의 계층내에서 형성된 개인의 경험과 역할체계는 그의 가족역할조직에 반영된다고 봄으로써 가족내의 사회관계는 일반사회의 계층구조에 대한 축소판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언어적 통제방식이 하류계층인 경우 명령적 통제나 지위지향적 통제가 주로 사용되는데 반하여 중류계층인 경우는 개인지향적 통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 이러한 사회계층과 언어적 상호작용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즉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부모들은 인성지향적 통제를 많이 사용하고 사회계층이 낮은 경우는 명령적 통제나 지위지향적 통제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문성희, 1982; 신양재, 1986; Cook, 1973; Gumpers, 1973). 그러나 선행연구들을 통해 오늘날 우리나라 가족생활에서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유형을 짐작하는 것은 무리가 있

으므로 1990년대에 나타나는 사회계층에 따른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에서의 변화여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성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Becker(1964)는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에 대한 아동의 지각에서 여아보다 남아가 더 명령적인 언어적 통제를 받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반대로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서선주, 1987; Maccoby & Jacklin, 1974). 따라서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에서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요청된다고 본다.

2. 아동의 부적응

부적응에 대한 정의는 입장이나 시대적 배경에 따라 달라지며, 또한 여러가지 장애나 증상을 포함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의 부적응은 아동이 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성장해 나가면서 각종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내는 정서적·행동적 부적응이나 장애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부적응은 그 특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그 분류하는 기준과 용어에는 학자마다 약간씩 그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Achenbach 등의 아동행동목록을 기초로 홍경자(1986)는 내적요인으로 우울성, 정신신체 증상, 사회적 위축성, 정신병성향, 강박성, 과잉불안, 혼합요인으로 학교거부성향, 정서불안정성, 외적요인으로 미숙·공격성, 비행성, 히스테리·성적문제, 과잉활동성, 편집성, 퇴행성의 14개 하위범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chenbach 등의 아동행동목록을 기초로 한 홍경자(1986)의 14개 하위요인 중 내용이 중복되고 특성이 뚜렷하지 않은 요인을 제외하고 8요인 즉 우울성, 사회적 위축성, 과잉불안, 학교거부성향, 정서불안정성, 미숙·공격성, 비행성, 과잉활동성을 중심으로 부적응행동을 분류하였다.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성별, 사회계층 요인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정서적 장애나 행동장애의 발생과 분포에 있어서 중

요한 성별요인이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은 부적응행동의 발생율에 있어서 남아가 여아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의 발생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나타나는 문제의 양상에서 또한 그 내용이 현저히 다르다고 보고하였다. 즉 남아는 외적요인, 행동적 증상에서 훨씬 높은 발생율을 보인 반면, 여아의 경우 신경증적 증상, 내향적 성격문제를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Arnold & Smelzer, 1974; Gould et al., 1981).

다음으로 사회계층요인을 살펴보면 Achenbach (1978)는 사회계층계층을 세 단계로 나누어 비교한 연구에서 상류계층의 아동이 가장 적은 행동문제 점수를 얻었고, 하류계층의 아동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상류층 자녀들은 좀 더 정서적 혹은 신경증적 문제행동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 하류층으로 갈수록 외향적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부적응

현재까지 국내외의 선행연구들 중에서 부모의 언어적 통제유형과 아동의 부적응과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문제에 대한 잠정적 해답을 예측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아동의 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취급되어 온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고찰한 연구결과들을 통해서 언어적 통제유형과 아동의 부적응과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가 아동에게 정서적 불안의 원인이나 문제행동을 유발시킨다는 관점에서 분류를 시도한 연구들이 많다. 공인숙(1989)은 부모를 온정적으로 지각한 아동은 안정감을 느끼고 불안수준이 낮아지고 사회적 역량에 대한 자기 지각이 높아지는 반면, 부모를 비온정적이며 단호한 통제를 하는 경우로 지각한 아동은 친구관계에서 언어적·신체적 공격성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하였다. 김재은(1984)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나 부모-자녀관계가 전체적으로 아동의 성격형성이나 행동에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Hollahan과 Kauffman

(1978)도 정서부적응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가족관계에서의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들고 있다. 또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거부적인 태도는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반사회적이고 비사회적인 범죄성격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정원식, 1977)고 하였다. 위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가정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언어형태나 아동의 입장,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면 아동이 부적응 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의 부적절한 상호작용과 아동의 부적응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부모가 아동에게 일방적인 명령지향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보다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상황이나 인물, 주제에 대해 구체적인 표현의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거나(이경희와 정옥분, 1994), 아동의 지위에 근거한 규범에 따른 언어를 사용한다면 아동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하여 아동의 적응능력에 도움을 주리라고 예상된다.

아동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부모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는데 특히,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은 양육태도 중에서도 언어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부모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국 일반적인 양육태도가 언어적 측면에도 반영되리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은 다양한 부적응 행동을 통합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을 통하여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깊이있는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부모의 언어환경인 언어통제유형이 아동의 부적응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사회계층을 고르게 하기 위하여 서울시내 5개구(강남구, 관악구, 도봉구, 서초구, 성

북구)에 소재한 5개 국민학교의 6학년 남녀아동 460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은 부모 각각의 언어통제유형에 관해 응답하고 어머니는 아동의 부적응을 평정하였는데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자료와 아동의 부적응 자료의 회수율은 96.7%였다. 실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아버지, 어머니, 아동 각각 445부로 총 1335(445×3)부였다.

연구대상 아동 중 남자는 212명으로 52.1%, 여자는 195명으로 47.9%이었다. 부모에 대해 살펴보면 아버지의 직업은 전문직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자영상공업의 순이었다.

2. 측정도구

1)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이경희(1993)가 제작한 아동용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은 명령적, 지위적, 인성적 통제의 세 유형으로 구분되고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 척도는 27문항,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척도는 2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4점 리커트 형식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언어통제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즉, 문항별로 각 언어통제유형의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게 나타난 점수를 부모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언어유형으로 범주화하였다. 이경희가 보고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어머니 언어통제유형에서 명령적 통제 .95, 지위적 통제 .91, 인성적 통제 .93 이었고 아버지 언어통제유형에서 같은 순서로 .95, .93, .9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어머니의 경우 같은 순서로 .87, .80, .88이었고 아버지의 경우 .89, .83, .89 였다. 그리고 요인타당도가 이경희의 연구(1993)에서 입증되었다.

2) 아동의 부적응 척도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의 부적응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도구는 홍경자(1986)가 Achenbach와 Edelbrock(1983)이 제작한 Child Behavior Checklist (CBCL)을 기초로 한국아동에게 적용하여 아동의 행동질문지를 개발한 것이다. 이 척도는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홍경자(1986)가 개발한 척도의 14개 하위범주 중 내용이 중복되고 특성이 뚜렷하지 않은 요인을 제외하고 8개 하위요인을 측정한 김명숙(199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8개 하위요인으로는 내적요인의 우울성 11문항, 사회적 위축성 6문항, 과잉불안 11문항, 외적요인의 미숙·공격성 20문항, 비행성 12문항, 과잉활동성 14문항 그리고 혼합요인의 학교거부성향 6문항, 정서불안정성 10문항이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0점, '약간 그렇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2점으로 하였으며 점수값이 클수록 측정하고자 하는 척도의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명숙(1995)이 보고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내적요인 .85, 혼합요인 .86, 외적요인 .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같은 순서로 .82, .57, .88 이었다.

3) 사회계층

홍두승(1983)의 직업분류를 사용하여 아버지의 직업을 측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연구대상 아동의 사회계층을 분류하였다. 부모 모두 직업을 가진 경우는 둘 중 더 높은 계층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 결과 연구대상의 사회계층별 빈도 및 백분율은 상층 164명(36.9%), 중층 181명(40.7%), 하층 100명(22.5%)이었다.

3. 연구절차

예비조사는 성북구의 1개 국민학교 6학년 남, 녀 아동 58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예비조사 결과 명확한 의미 전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모언어통제유형의 문항을 재구성하여 본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조사는 평상시의 자연스러운 상황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개입하지 않고 담임선생님의 지도하에 이루어 지도록 하되 순서의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받은 어머니에 관해 먼저 검사를 실시하고 받은 아버지를 먼저 하도록 하였다. 아동의 부적응 척도는 아동을 통해 어머니에게 배부하여 어머니가 직접 평정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6학년 남, 녀 아동 460명에 대해 회수된 445명의 자료 총 1335부

를 연구문제에 따라 자료처리 하였다.

4. 자료분석

연구대상의 일반적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부모의 언어통제의 경향과 아동의 부적응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부모의 성별, 사회계층(상, 중, 하)에 따른 언어통제유형의 차이와 아동의 성별 그리고 사회계층(상, 중, 하)에 따른 부적응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각각 이원변량분석을 시행하였고, 추후검정으로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언어통제와 아동의 부적응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문제에 따라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집단에 따른 아동의 부적응을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 및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든 경우의 유의수준은 $\alpha = .05$ 로 하고 이상의 통계처리는 SAS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언어통제유형의 하위척도별 평균을 산출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았다. 아버지는 지위적 통제(1.69)를 인성적 통제(1.27)와 명령적 통제(1.12)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경향은 어머니도 동일하여 아버지와 같이 지위적 통제(1.58), 인성적 통제(1.18), 명령적 통제(1.05)의 순이었다. 부모 모두 생활지도에 관련된 문항에서 언어통제 점수가 높아 언어통제를 하는 상황이 비슷한 경향을 보였지만 하위변인들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의 경우 주로 예의범절이나 생활지도 등에 관련되는 문제에서 통제가 많이 나타나는 반면, 어머니는 학업에 관련되는 경우나 정리정돈 등에 관련되는 문제에 언어통제를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

2. 아동의 부적응

아동의 부적응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적응의 경향이 높음을 의미하며 각 하위요인에서 문항의 수가 다르므로 하위요인별 평균점수를 문항의 수로 나누어 요인별 비교를 하였다. 부적응을 구성하는 각 하위척도의 평균점수가 .11에서 .52의 범위를 나타내어 어머니는 아동이 비교적 잘 적응해 나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남이는 .29, 여이는 .34로 여아의 부적응이 더 높게 평가되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과잉불안이 평균 .52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과잉활동성 .47, 미숙·공격성 .43의 순으로 평가되었다. 모든 하위요인에서 남아에 비해 여아가 8개 전 하위요인과 부적응 전체 점수에서 높게 나타났다.

3. 아동의 성별, 사회계층에 따른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의 일반적인 경향을 기초로 하여 아동의 성별(남, 여), 사회계층(상, 중, 하)에 따른 언어통제유형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은 명령적 유형과 인성적 유형에서 아동의 성별집단간(남, 여), 사회계층 집단간(상, 중, 하)의 주효과는 유의했으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성별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어머니의 명령적 통제유형에서 남아 집단의 점수의 평균이 1.08로 여아 집단의 평균 1.01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인성적 통제유형에서는 여아 집단의 평균점수가 1.27로 남아 집단의 평균 1.15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는 남아에게 명령적 통제를, 여아에게 인성적 통제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계층 집단간 차이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한 Scheffé 검증의 결과는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어머니의 명령적 통제유형은 사회계층 상 집단과 중, 하집단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 집단간의 차이가 각각 유의한 것으로

〈표 1〉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N = 404)

하위범주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	Scheffé 검증 상 중 하
명령적 통 계	성별(A)	1	2828.54	2828.54	5.98*	
	사회계층(B)	2	3758.70	1879.35	3.98*	a b b
	A×B	2	707.68	353.84	.75	
	오차	398	188106.72			
	전체	403	194746.32			
지위적 통 계	성별(A)	1	9.39	9.39	.04	
	사회계층(B)	2	256.28	128.14	.50	
	A×B	2	715.06	357.53	1.41	
	오차	398	101157.25	254.16		
	전체	403	102142.32			
인성적 통 계	성별(A)	1	1504.54	1504.54	4.34*	
	사회계층(B)	2	9025.02	4512.51	13.02***	a b c
	A×B	2	587.71	293.86	.85	
	오차	398	137920.36	346.53		
	전체	403	148858.55			

* P < .05, *** P < .001

〈표 2〉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N = 405)

하위범주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	Scheffé 검증 상 중 하
명령적 통 계	성별(A)	1	6047.41	6047.41	16.57***	
	사회계층(B)	2	1218.87	609.43	1.67	
	A×B	2	250.68	125.34	.34	
	오차	399	145649.90	365.04		
	전체	404	153101.10			
지위적 통 계	성별(A)	1	284.98	284.98	1.06	
	사회계층(B)	2	564.26	282.13	1.05	
	A × B	2	221.98	110.99	.41	
	오차	399	107015.37	268.21		
	전체	404	108305.77			
인성적 통 계	성별(A)	1	1084.47	1084.47	3.35	
	사회계층(B)	2	3838.27	1919.13	5.92**	a a b
	A × B	2	154.65	77.33	.24	
	오차	399	29258.51	323.96		
	전체	404	34345.83			

** P < .01, *** P < .001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명령적 통제유형과 인성적 통제유형이 높게 평가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버지의 명령적 통제유형에서 아동의 성별집단간(남, 녀), 인성적 유형에서 사회계층 집단간(상, 중, 하)의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호작용 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버지의 명령적 통제유형에서 성별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남아 집단의 평균점수가 1.17로, 여아 집단의 평균 1.07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 여아보다 남아에게 명령적 통제유형을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인성적 통제유형에서 나타난 사회계층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Scheffé 검증의 결과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인성적 통제유형은 상 집단과 하 집단, 중 집단과 하 집단과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 중 집단이 하집단에 비해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이 보다 인성적임을 의미한다.

4. 아동의 성별, 사회계층에 따른 아동의 부적응

아동의 부적응 점수의 평균을 기초로 하여 아동의 성별(남, 여), 사회계층(상, 중, 하)에 따른 부적응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부적응 하위범주에 따라 성별집단간(남, 여), 사회계층 집단간(상, 중, 하)에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의 부적응에서 우울성과 과잉활동성은 성별집단간, 사회계층 집단간 모두 유의미한 주효과가 나타났으며 사회적 위축성은 성별집단간에, 정서불안정성, 미숙·공격성, 비행성은 사회계층 집단간에 유의미한 주효과가 나타났으나 모든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성별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우울성, 사회적 위축성, 과잉활동성을 살펴 본 결과 여아 집단의 평균점수가 차례로 .37, .30, .50으로 남아 집단의 평균 .30, .22, .44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

는 남아보다 여아의 부적응이 더 높게 평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범주별로 유의하게 나타난 사회계층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Scheffé 검증의 결과는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아동의 부적응의 하위범주 중 우울성, 정서불안정성, 미숙·공격성, 비행성과 과잉활동성은 모두 사회계층 상 집단과 하 집단, 중 집단과 하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중 집단에 비해 하집단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회계층이 하 집단일수록 아동의 부적응이 높게 평가되었음을 의미한다.

5.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부적응과의 관계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부적응의 제 하위요인들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남녀아동을 통합한 자료로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적응의 하위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아버지의 지위적 통제유형은 하위변인 모두에서 부적응으로 작용하였고, 어머니의 경우에는 지위적 통제에서 정서불안정성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에서 부적응 관계가 나타났으며 우울성, 미숙·공격성, 비행성, 과잉활동성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명령적 통제유형에서는 아버지의 경우 학교거부성향, 정서불안정성을 제외한 변인들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인성적 통제유형에서 어머니의 경우 정서불안정성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볼때, 언어통제유형에서 아버지, 어머니 모두 지위적 통제유형이 아동의 부적응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제유형과 부적응의 상관이 아동의 성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남녀아동으로 나누어 상관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인 경향은 대체로 유사하나 아동의 성차에 따라 부모의 통제유형의

〈표 3〉 아동의 성별, 사회계층별 부적응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N=407)

하위범주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	Scheffé 검증 상 중 하
우울성	성별(A)	1	47.90	47.90	6.83**	
	사회계층(B)	2	61.93	30.97	4.92*	a a b
	A×B	2	9.77	4.88	.70	
	오차	401	2811.14	7.01		
	전체	406	2937.21			
사회적 위축성	성별(A)	1	21.25	21.25	7.40**	
	사회계층(B)	2	8.23	4.11	1.43	
	A×B	2	.01	.01	.00	
	오차	400	1149.09	2.87		
	전체	405	1182.41			
과잉불안	성별(A)	1	.00	.00	.00	
	사회계층(B)	2	22.84	11.42	2.15	
	A×B	2	12.13	6.07	1.14	
	오차	401	2127.49	5.31		
	전체	406	2165.54			
학 교 거부성향	성별(A)	1	.77	.77	.80	
	사회계층(B)	2	1.16	.58	.61	
	A×B	2	.55	.28	.29	
	오차	400	382.72	.96		
	전체	406	384.90			
정 서 불안정성	성별(A)	1	4.91	4.9	1.45	
	사회계층(B)	2	40.01	20.0	5.89**	a a b
	A×B	2	2.37	1.18	.35	
	오차	401	1361.14	3.39		
	전체	406	1405.73			
미 숙 공격성	성별(A)	1	70.06	70.06	2.57	
	사회계층(B)	2	342.10	171.05	6.28**	a a b
	A×B	2	33.89	16.94	.62	
	오차	401	10926.13	27.25		
	전체	406	11369.52			
비행성	성별(A)	1	30.99	30.99	5.81	
	사회계층(B)	2	93.77	46.89	8.79***	a a b
	A×B	2	16.68	8.34	1.56	
	오차	400	2134.05	5.34		
	전체	405	2269.15			
과 잉 활동성	성별(A)	1	127.73	127.73	8.79**	
	사회계층(B)	2	284.43	142.22	9.78***	a a b
	A×B	2	65.56	32.78	2.25	
	오차	401	5829.25	14.54		
	전체	406	6250.51			

* P < .05, ** P < .01, *** P < .001

〈표 4〉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부적응과의 상관관계

(N = 245)

부 적 응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명령적	지위적	인성적	명령적	지위적	인성적
우울성	.02	-.08	.001	.08	-.12*	-.02
사회적 위축성	.01	-.02	.05	.06	-.02	.02
과잉불안	.06	-.11*	-.04	.09	-.09	-.06
학교거부성향	-.01	-.08	-.02	-.01	-.07	.004
정서불안정성	-.04	-.03	.02	-.05	.001	.10*
미숙·공격성	.03	-.14**	.01	.06	-.14**	-.02
비행성	.003	-.10*	-.04	-.02	-.11*	-.02
과잉활동성	.02	-.14**	.02	.04	-.12*	-.001
전 체	.02	-.13**	.003	.05	-.12*	-.01

* P < .05, ** P < .01, *** P < .001

〈표 5〉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남녀 아동의 부적응과의 상관관계

부 적 응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명령적	지위적	인성적	명령적	지위적	인성적
남아 (n = 212)						
우울성	.09	-.02	.01	.14*	-.10	-.05
사회적 위축성	.09	.01	-.01	.07	.02	-.07
과잉불안	.07	-.05	-.04	.09	-.09	-.11
학교거부성향	.01	.02	-.06	.02	-.09	-.05
정서불안정성	.01	.001	-.04	-.02	.02	.05
미숙·공격성	.07	-.05	-.02	.10	-.08	-.09
비행성	.04	-.08	-.08	.02	-.10	-.08
과잉활동성	.05	-.11	.01	.12	-.10	-.01
전 체	.07	-.06	-.03	.10	-.09	-.07
여아 (n = 195)						
우울성	-.01	-.18**	-.06	.06	-.13	-.05
사회적 위축성	.04	-.08	.05	.11	-.08	.05
과잉불안	.12	-.17*	-.08	.13	-.09	-.06
학교거부성향	.02	-.18**	.001	-.03	.05	.03
정서불안정성	-.08	-.08	.04	-.06	-.04	.12
미숙·공격성	.07	-.23***	.02	.08	-.20**	.01
비행성	.04	-.17*	-.04	-.02	-.14*	-.03
과잉활동성	.05	-.21**	-.01	.02	-.16*	-.02
전 체	.05	-.22**	-.01	.06	-.16*	.001

* P < .05, ** P < .01, *** P < .001

영향이 상이함을 보여 주었다.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에서 명령적 통제가 아동의 우울성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일 뿐 다른 하위변인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남아는 명령적 통제에서 아버지의 경우 모든 변인에서 정적인 관계를 보였고, 어머니의 경우 정서불안정성을 제외한 모든 하위변인들에서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남아는 인성적 통제에서, 아버지의 경우 우울성과 과잉활동성을 제외한 모든 하위변인에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어머니의 경우 정서불안정성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여아의 경우 특히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의 지위적 통제와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던 남아와는 달리 지위적 통제의 하위변인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여아는 지위적 통제에서, 아버지의 경우 사회적 위축성, 정서불안정성을 제외한 모든 하위변인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주목할 점은 남아의 경우 전반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서 명령적 통제는 아동의 부적응과 정적으로, 인성적 통제는 부적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뚜렷한데 반하여, 여아의 경우는 부와 모의 인성적 통제에 비해 지위적 통제가 보다 부적으로 관련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볼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위적 통제를 할수록 여아의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6.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집단과 아동의 부적응

부모 각각의 세가지 언어통제유형을 조합한 그룹간에 아동의 부적응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세가지 언어통제 하위변인 중 평균점 이상이면서 가장 점수가 높은 유형을 부모 각각의 대표적 언어통제유형으로 하여 아홉개 그룹으로 나누었다. 이 그룹간의 부적응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변량분석(SAS GLM PROC)을 하였고, 유의한 경우 평균간의 차이검증은 Scheffé의 검증방법으로 실행하였다.

부적응의 하위변인들 중 우울성, 미숙·공격성, 과잉활동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2.03-2.76$;

$df=8,407$; $P < .05$).

〈표 6〉은 부모의 언어통제그룹에 따른 아동의 부적응 평균점수이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이 서로 일치하는율은 60.7%였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울성의 경우 명령적-지위적 그룹이 인성적-명령적, 명령적-명령적, 인성적-인성적 그룹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집단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미숙·공격성은 명령적-명령적 그룹이 명령적-지위적, 지위적-명령적, 지위적-지위적 그룹보다 유의하게 높아 아동에게 부정적임을 보였다. 과잉활동성은 명령적-명령적 그룹이 지위적-인성적 그룹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전체 부적응 점수의 경우 명령적-명령적 그룹이 명령적-지위적, 지위적-명령적, 지위적-지위적, 지위적-인성적, 인성적-지위적 그룹보다 높게 나타나 그룹간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볼때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지위적 통제유형을 사용할때 아동의 부적응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아동의 바람직한 적응을 위해 부모의 지위적 통제유형이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부모의 통제집단간의 이러한 영향이 남녀 아동간에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남녀 아동별로 같은 과정의 분석을 한 결과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V. 논의 및 결론

1.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언어통제 세 유형 중 부모 모두 명령적 통제점수가 다른 유형들의 점수에 비해 낮았고 부모의 지위적 통제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 문화권의 사회구조적 체계가 지위지향적 체계와 가깝기 때문에 가정의 의사결정권을 가족 구성원들의 지위에 따라 주기 때문에 역할과 책임영역이 엄격히 구분되고 그러한 규칙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지위적 통제가 많이 행사된 것으로 생각된다(이경희, 1993).

본 연구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결과는 부모 중 아버지의 언어통제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경우 자녀에게 지위적 통제를

〈표 6〉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집단에 따른 아동의 부적응 평균 점수

(N = 445)

아버지-어머니	표본수	우울성	미숙·공격성	과잉활동성	전 체
명령적-명령적	31	4.66	11.89 a	8.48 a	40.59 a
명령적-지위적	28	3.28	7.92 b	6.12 ab	28.24 b
명령적-인성적	10	4.50	9.90 ab	7.50 ab	35.70 ab
지위적-명령적	34	3.73	7.85 b	6.46 ab	29.27 b
지위적-지위적	190	3.38	8.27 b	6.12 ab	29.31 b
지위적-인성적	51	3.41	7.47 b	5.94 b	29.08 b
인성적-명령적	20	4.85	10.00 ab	8.20 ab	36.05 ab
인성적-지위적	28	3.37	8.40 b	6.70 ab	31.44 ab
인성적-인성적	43	4.51	10.28 ab	7.93 ab	36.54 ab

* 같은 문자로 표기된 평균치는 동일 행내에서 5% 수준에서 유의성이 없음.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아들에게는 딸보다 명령적 통제를, 딸에게는 아들에 비해 인성적 통제를 더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부모가 기대하는 아동의 상이 성별에 따라 다른 데서 오는 부모의 자녀양육방식에서의 성차에서 기인될 수 있다. 양육방식의 차이로 인해 자녀의 같은 행동에 다르게 반응함으로써 다른 언어통제유형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는데, 부모가 여아에게 보다 남아에게 성취를 요구하며 신체적 벌을 많이 주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조희진, 1982)를 볼때 남아가 여아보다 명령적 통제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지각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통제유형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녀간의 기질적 차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환경과 아동의 성별 기질을 함께 고려해 봄으로써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에서 나타나는 성별차이에 대한 잠정적인 추론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가지 유의할만한 결과는 부모 중 특히 아버지의 언어통제가 사회계층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회계층을 분류한 기준이 아버지의 직업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사회계층에 따른 아버지의 통제유형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사회계층을 형성한 주된 가족구성원으로서 아버지의 경험차이는 어머니에 비해 가족내에 보다 깊이 반영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로 사회계층차이는 부모자녀간의 언어적 상호작용방식에서 차이를 낳는다고 볼 수 있다.

2. 아동의 부적응

부모가 평정한 아동의 부적응은 점수가 높을수록 그 성향이 높음을 의미하는데 대체로 점수 분포가 낮아 부모는 아동이 비교적 잘 적응해 나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각 하위요인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대체로 0점에서 1점사이에 분포함으로써 아동의 부적응 점수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본 연구결과 나타난 부적응에 대한 낮은 평가는 연구대상 선정시 응답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서울시내에 소재하는 국민학교 정상아동을 중심으로 표집하였기 때문에 행동상에서 문제가 뚜렷하게 평가될 수 없었다고 본다.

주목할 점은 많은 선행연구들은 부적응행동의 발생률에 있어서 남아가 여아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의 발생율을 보고하고 있고(Arnold & Smelzer, 1974; Gould et al, 1981) 행동양상의 내용에서도 뚜렷한 성차를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는 상반되게 부적응의 하위요인 모두에서 여아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차를 유발하는 아동의 타고난 기질적 소인으로서 단순하게 부적응의 행동양상을 이분화하기 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부적응의 유발요인과 특히 이전 연구

와는 달리 여아에게 부적응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원인을 규명해 볼 필요성을 주지시킨다고 하겠다. 즉, 과거와는 달리 현대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가정 내·외적으로 폭넓게 증가하였고 이에 맞는 여성에 대한 사회의 기대는 여성에게 여성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따르도록 요구하면서도 여성적 행동은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Perry & Bussey, 1984)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은 오늘날 사회에서 기대하는 여성에 대한 역할 사이에서 이중적인 제약을 느끼게 된다고 하겠다. 특히 국민학교 고학년의 여자아동은 타인의 사고와 기대를 조망해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부딪히는 부적절감이 남아에 비해 크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요청된다.

아동의 부적응은 우울성, 사회적 위축성, 정서불안정성, 미숙·공격성, 비행성, 과잉활동성에서 성별(남, 여), 사회계층(상, 중, 하)에 따라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우울성과 사회적 위축성의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인 과잉활동성에서 여아의 평균이 남아에 비해 높게 나타남으로써 여아의 행동양상이 이전의 경우와는 크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우울성, 정서불안정성, 미숙·공격성, 비행성, 과잉활동성에서 사회계층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계층이 하인 집단의 아동들의 경우 사회경제적, 환경적 여건이 아동의 적응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강한 증거를 시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아동의 부적응을 진단하는 것은 임상적, 전문적인 문제이므로 범주별 분류에 대한 이해가 다소 어렵다고 하더라도 부적응의 각 하위 범주간 문항이 중복되어 있는점, 부적응 문제에 따라 나타나는 행동양상에서 뚜렷한 정도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값으로 산정하는 등의 제한점이 있으므로 앞으로 국민학교 아동의 행동문제 분류를 위한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타당한 분류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보완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부적응에 대해 선행연구와는 다른 성별차이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겠다.

3.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부적응

부적응이 하위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위적인 통제유형과 아동의 부적응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지위적 통제유형은 부적응 하위변인 모두에서 부적응 관계를 가지며, 어머니의 경우 정서불안정성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에서 부적응으로 작용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에서 아버지, 어머니 모두 지위적 통제유형을 사용할 때 아동의 부적응과 부적응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부모의 지위적 통제유형이 아동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것은 도덕적인 규범이 강한 유교문화권의 한 특성으로서 규칙과 규범이 강조되는 사회생활, 학교생활에 비추어 볼 때 아동의 역할재량권을 형식적 지위에 제한을 두는 부모의 지위적 통제의 사용은 아동의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부적응간의 관계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통제유형과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딸의 부적응에 미치는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이 아동의 경우와는 크게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남아의 경우 전반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명령적 통제는 아동의 부적응과 정적으로, 인성적 통제는 부적응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뚜렷하나 여아의 경우는 부와 모의 인성적 통제보다 오히려 지위적 통제가 보다 부적응으로 관련되는 특성을 나타내었는데 남아와 여아의 이러한 반응상의 차이는 부분적으로 부모가 아동의 성에 따른 양육방법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일 수 있다.

특히 여아의 경우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지위적 통제에서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던 남아와는 달리 여아는 유의미한 부적응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여아의 사회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지위적 체계에 따른 설명이 중요하다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결정의 범위나 판단이 가족의 지위에서 오는 지위적 통제가 여아의 부적응을 예방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남아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의 명령적 통제는 아

동의 부적응과 정적으로, 인성적 통제는 부적응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어머니의 명령적 통제는 정서불안정성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과 부적응 관계를 나타내었다. 아버지의 명령적 통제는 아동 스스로가 행동을 평가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함과 동시에, 아동의 행동에 대한 비난이나 평가를 아버지가 함으로써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어렵게 하고 자기평가를 낮춤으로써 아동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부모의 인성적 통제는 남아의 부적응에 부적응 관계를 가짐으로써 논리적 사고에 따라 이루어지는 결정으로 가족 개개인의 심리적인 특성에서 오는 기능을 강조하는 인성적 통제유형이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 Bernstein(1971)의 결론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상관계수가 낮게 산출되어 결과의 해석에 무리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으며 아울러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4.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집단에 따른 아동의 부적응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부모간 언어통제유형의 일치, 불일치의 영향을 보기 위하여 아홉집단(동일 통제형 세집단, 상이한 통제형 여섯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동의 우울성, 미숙·공격성, 과잉활동성에서 집단간에 부적응의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명령적 통제를 사용할때 부적응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성적·명령적, 명령적·인성적 집단이 아버지의 지위적 통제 세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 분이 인성적 통제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분이 대조적으로 명령적 통제를 사용할 경우 아동의 적응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부모의 인성적 통제유형이 아동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려면 부부간에 유사한 정도로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우리 사회

는 아직도 가부장적인 전통으로 남성에게 많은 특권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아동은 자라면서 아버지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므로(이경희, 1993) 본 연구결과 나타난 바와 같이 아버지가 지위적인 언어유형으로 아동을 통제하면 아동의 적응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명령적·인성적 통제 또는 인성적·명령적 통제로 대비가 되면 갈등이 조장되어 아동은 통제방향을 수락하기가 더욱 어렵게 됨으로써 부적응을 촉발할 수 있다.

【참고문헌】

- 1) 공인숙 (1989).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한국아동학회지*, 10(1), 64-78.
- 2) 김명숙 (1994).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김재은 (1984). *한국가족의 심리*. 서울: 이대 출판부.
- 4) 문성희 (1982).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개념화 유형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박세은 (1994).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 부모의 훈육과의 관계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서대선 (1982). 행동장애 학생의 실태조사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서선주 (1988). 부모의 언어적 통제유형과 아동의 내외통제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신양재 (1986). 부모의 언어적 상호작용방식과 아동의 역할조망능력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안명신 (1987).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공격행동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오승연 (1993). 국민학교 아동의 충동성과 부적응 행동 및 가정환경과의 관계 연구. *한국 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이경희 (1993).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12) 이경희·정옥분 (1994).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2(5), 109-123.
 - 13) 이현주 (1990).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언어적 통제유형과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정원식 외 (1977). *현대교육심리학*. 서울: 교육출판사.
 - 15) 조희진 (1982).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내외제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6) 차재호 (1983). 試案의 심리적 접근, 한국인의 윤리관. 정신문화연구원.
 - 17) 홍강의·홍경자 (1985). 국민학교 아동의 행동문제 연구(1). *정신의학보*, 9(2), 48-63.
 - 18) 홍두승 (1983). “직업분석을 통한 계층연구-한국표준직업분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5(2), 69-86.
 - 19) Achenbach, T. (1978). The child behavior profiles: 1 boys aged 6 through 11.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 478-488.
 - 20) Becker, W. (1964). Consequences of parental discipline.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1, 168-172.
 - 21) Bernstein, B.A. (1971). *Class, codes and control (vol. 1): Theoretical studies towards sociology of languag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22) Cook, J.A. (1973). Language and Socialization: a critical review, In B. Bernstein (Ed.). *Class, Codes and Control (vol. 2): Applied Studies toward a Sociology of Languag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23) Gumpertz, J.J. (1973). *Directions in Sociolinguistics: The ethnography of communication*. London: Holt, Rinehart & Winston.
 - 24) Hallahan, D.P. & Kauffman, J.M. (1978). *Exceptional children*. Ea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 25) Maccoby, E.E. & Jacklin, C.N. (1974).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26) Perry, D.G. & Bussey, K. (1984). *Social development*. New Jersey: Prentice Hall.
 - 27) Thorlindsson, T. (1981). A quest for mind: A study of family interaction, role taking ability and use of elaborated language, in an icelandic setting.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273-293.
 - 28) Wertsch, J.V. (1980). The significance of dialogue in Vygotsky's account of social, egocentric, and inner speech.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5, 150-162.
 - 29) Wertsch, J.V. (1985). Adult-child interaction as a source of self-regulation in children, In Yussen, S.R. (Ed.). *The growth of reflection in children*. New York: Academic Press.

〈부록〉 부적응 질문지의 문항구성

하 위 요 인	문 항 번 호	문 항 수	
내적 요인	우울성	11, 13, 15, 18, 19, 20, 23, 24, 25, 26, 40	11
	사회적 위축성	19, 37, 49, 50, 55, 56	6
	과잉불안	1, 13, 29, 43, 56, 61, 62, 63, 64, 65, 69	11
혼합 요인	학교거부성향	9, 11, 16, 17, 48, 52	6
	정서불안정성	4, 14, 27, 28, 36, 38, 42, 43, 47, 53	10
외적 요인	미숙·공격성	1, 5, 6, 7, 10, 12, 16, 21, 22, 29, 30,	20
		32, 41, 44, 53, 55, 57, 58, 59	
	비행성	3, 8, 23, 33, 34, 35, 39, 45, 46, 51, 52, 54	12
	과잉활동성	2, 4, 5, 7, 10, 12, 21, 31, 34, 41, 60, 66, 67, 68	14

〈부록〉 부적응 질문지의 문항

1. 나이에 비해 어리게 행동한다.
2. 말다툼을 자주 한다.
3. (남자인 경우) 여자처럼 행동한다.
(여자인 경우) 남자처럼 행동한다.
4. 잘난체 한다.
5. 집중력이 없고 어떤 일에 오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6. 너무 어른에 의지하고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
7. 잘 운다.
8. 남에게 잔인한 짓을 하거나 괴롭히고 못살게 군다.
9. 고의로 자신을 해치거나 자살기도를 한다.
10. 자신의 물건을 잘 부순다.
11. 가족이나 다른 아이의 물건을 부순다.
12. 집에서 말을 잘 듣지 않는다.
13. 학교에서 선생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14. 잘 먹지 않는다.
15. 샘을 잘 낸다.
16. 어떤 동물이나 상황, 장소(학교 제외)를 두려워 한다.
17. 학교가는 것을 두려워 한다.
18.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듯하다.
19. 자기가 가치가 없거나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20. 잘 다치거나 사고를 잘 낸다.
21. 자주 싸운다.
22. 자주 놀림을 당한다.
23. 충동적이고 생각없이 행동한다.
24.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25. 거짓말을 하거나 속인다.
26. 손톱을 깨문다.
27. 신경이 예민하고 긴장을 잘 한다.
28. 밤에 무서운 꿈을 꾼다.

29. 다른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30. 학교 공부를 제대로 못 따라 간다.
31. 운동신경이 둔하고 어색하게 움직인다.
32. 자기보다 나이 어린 애들과 노는 것을 좋아한다.
33. 가출한다.
34. 자주 소리를 지른다.
35. 있지도 않은 것(헛것)을 본다.
36. 불을 지른다.
37. 수줍거나 소심하다.
38. 언어장애가 있다.
39. 집안에서 도벽이 있다.
40. 이상한 행동을 한다.
41. 고집이 세고 시무룩하거나 성질을 부린다.
42.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43. 잠자면서 걸어다니거나 이야기 한다.
44. 남을 잘 놀린다.
45. 성미가 급하고 제 뜻대로 안되면 데굴데굴 구른다.
46. 남을 위협한다.
47. 잠자는데 문제(수면문제)가 있다.
48. 무단 결석하며 학교를 빼 먹는다.
49. 비활동적이고 동작이 느리며 원기가 부족하다.
50.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 한다.
51. 유난히 소란스럽다.
52. 기물이나 시설을 부순다.
53. 낮에 오줌을 싸다.
54. (남자인 경우) 여자가 되고 싶어한다.
(여자인 경우) 남자가 되고 싶어한다.
55. 위축되어서 남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
56. 걱정이 많다.
57.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한다.
58. 지도력이 없는 것 같다.
59. 무슨 일을 하다가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한다.
60.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며 지나치게 많이 움직인다.
61. 혼동되어서 갈피를 못 잡는 듯하다.
62. 다른 아이와 잘 어울려 지내지 못한다.
63. 스스로 완벽해야 된다고 느낀다.
64.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불안해 한다.
65. 의학적으로 밝혀진 원인없이 나타나는 신체적 문제가 있다.
 - 1) 몸이 쭈시고 아프다
 - 2) 두통
67. 으시대거나 남을 웃기려고 심겨운 짓을 한다.
68. 감정이나 기분이 갑자기 변하곤 한다.
69. 청결, 정돈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